

자녀 교육에 대해

잠언 22:6,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는 부모에게 귀한 보배이다. 많은 부모는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자녀에게 둔다. 그들은 자녀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 일하고 수고하고 참고 인내한다. 자녀의 기쁨과 행복은 부모의 기쁨과 행복이 된다. 그러나 자녀를 낳는 것이 부모에게 자동적으로 행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녀가 반듯하게 잘 자라야 부모에게 행복이 된다. 만일 자녀가 커서 바르지 못하게 된다면, 부모의 마음에는 근심과 고통이 될 것이다. 자녀가 귀한 만큼, 자녀 교육은 부모에게 중요한 과제이다. 오늘은 자녀 교육에 대해, 즉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좀 증거하려고 한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종종 설교하였고 여전히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이 시간에는 성경의 모든 교훈들에 근거하여 세 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부모 자신이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야

첫째로, 부모 자신이 자녀에게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야 한다. 구원은 창조자와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구주 예수를 믿고 죄를 떠나고 의와 선을 행하는 변화된 삶이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구원받은 자는 경건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산다. 그는 성경책을 읽고 시시때때로 기도하며 성경의 교훈대로 의롭고 선한 삶을 산다. 그러므로 평소에 성경책을 읽지 않고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나, 또 하나님의 계명과 성경의 교훈을 행하는 의롭고 선한 삶이 없는 자, 즉 경건하고 선한 삶이 없는 자는 아마 구원받은 자가 아닐 것이다.

부모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자녀도 구원할 수 있다. 부모 자신이

잠언 22:6, “자녀 교육에 대해”

바르게 살아야 자녀를 바르게 살게 할 수 있다. 아이는 본이 필요하다. 사람은 흉내를 잘 낸다. 아이는 남을 잘 따라한다. 그러므로 그가 나쁜 본을 보면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좋은 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같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교훈하였고(고전 11:1) 또 디도에 쓴 편지에서 젊은 자들에게 본이 되라고 교훈하였다(딤후 2:7-8). 그러므로 부모 자신이 자녀에게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야 한다.

자녀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둘째로, 부모는 자녀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구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 오늘 본문 잠언 22:6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했다. 사람이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며 또 바르게 사는 것이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여 불행과 죽음, 특히 둘째 사망인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주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얻으라는 것이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은 없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창조주에 대해, 사람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고 회개와 믿음과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과 천국에 대해 가르쳐 주어야 한다.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창세 전의 선택과 하나님의 공휼에 근거한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기록하고 흠이 없는 자녀들을 만들고자 하셨다(엡 1:4-6). 그는 그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딤후 1:9).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시

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롬 8:30).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지 않을 것이다(요 6:37). 그러나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막 16:15-16). 믿는 가정의 자녀들의 구원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책임이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 외의 어떤 일들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또 부모는 자녀에게 바르게 사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의 가치는 바른 삶에 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다(전 12:13).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즉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주일에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또 소득의 십일조 이상과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또 계명을 지키는 삶은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고 남을 해치거나 욕도 하지 말아야 하고 음란하지 말고 순결성을 지켜야 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가지려는 탐심을 품지 말아야 한다.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하고 주일예배에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듣고 또 주일학교를 통해 성경을 배우게 해야 한다. 바른 신앙생활은 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 구원받은 성도는 경건 훈련과 도덕 훈련을 통해 성화를 이루어 간다. 우리의 자녀들도 경건 훈련과 도덕 훈련을 하도록 해야 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에베소서 6:4,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는 바로

앞에 말한 그러한 내용, 즉 경건과 도덕성에 관한 교훈들이다.

사람은 죽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 한다. 죽은 다음에는 구원의 가망이 없다. 주께서 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죽은 후에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호소했다(눅 16:27-28).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그 호소는 응답되지 못했다. 우리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야 하고 그가 성인이 되어도 그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교훈해야 하고 죽기 전에 구원을 받게 해야 한다.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셋째로,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그가 하나님과 복음을 깨닫도록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부모 자신이 나이가 들어 하나님을 알았을 경우, 즉 그의 자녀가 이미 다 커서 하나님을 모르고 불경건과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경우, 또는 자녀가 어릴 때는 교회에 잘 다녔지만, 자란 후에 세상으로 나간 경우, 부모는 자녀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은혜를 구할 것밖에 없다. 복음을 거절할 때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부모는 기도 제목의 우선 순위에서 앞부분에 자녀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는 사형장으로 가고 계셨을 때 백성과 밧 그를 위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 오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는 돌이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눅 23:27-29).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고 창조자와 섭리자 하나님을 모르고

잠언 22:6, “자녀 교육에 대해”

구주 예수님을 모르고 불경건과 부도덕의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것 때문에, 그들이 지옥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울어야 한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되, 특히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으로 말미암는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어떤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누구든지 구주 예수께로 나아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치 말고 오래 참고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기 전까지는 마음에 평안이 없어야 한다.

오늘 자녀 교육에 대해 몇 가지 교훈을 생각했다. 첫째로, 부모 자신이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야 한다. 자녀는 부모가 보여주는 본대로 신앙과 인격이 형성될 것이다. 둘째로, 부모는 자녀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했다. 바른 자녀 교육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방법이다.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창조주와 섭리자이신 하나님에 대해, 사람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구주 예수님에 대해, 구원과 내세에 대해 가르쳐 주고 경건하고 선한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지옥 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셋째로,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로 말미암는다. 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다.

자녀 교육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현세와 내세에 복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에서 계명 순종은 자녀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은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고 교훈한 후, 경건한 삶은 현세와 내세에 약속이 있다고 말했다. 디모데전서 4:8,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한 삶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현세와 내세에 복이 된다.